미와 이념사이에서 춤추는 예술

나가하는 글 부

성년의 문턱에서 화가의 꿈을 꾸던 나는 낭만주의의 거장 들라크르와(Delacroix)의 "자연은 한권의 사전이다"는 말과같이 그리고 "자연 앞에서 회화를 작성하는 것은 상상력이다"고 규정한 것처럼 자연을 기호(記號)의 일람표로 감소시켜 상상력을 이용하는 시절을 향촌의 교단에서 보냈다.

실제로 그 상상력은 예술가의 도착점이 아니라 단순한 출발점에 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뮐뮐에서처럼 실제로부터 뛰어오른 상상력은 나를 이르도록 아름다움에대한 탐색을 전념하고 있다.

이미 18세기 중엽에 바움가르텐(Baumgarten)이 "aesthetica" 즉 미학을 수립하고 '그것은 미와 예술의 학이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예술이 진정하게 아름다움을 상관했던 것은 이른바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의 사상이었다는 점은 그 하나의 예이다. 이를테면 그의 대표작 '게르니카'는 거의 회혹색이라 할 수 이쁜 무채단색에 가까운 그림이며 주지된 바와같이 지배권력자가 불러 일으킨 전쟁에 의해 갈갈이 찢어진 육체와 죽어가는 자의 고뇌들이 그려져 있고, 권력을 지닌자의 앙칼진 추악한 얼굴능이 그려졌을 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림앞에 설 때 우리는 게르니카라는 도시를 아망때문에 파괴하는 전쟁의 참화와 그것을 추켜세우는 자에 대한 민중의 분노, 그리고 한가닥의 평화에 대한 희망을 생각케 한다. 즉 정서를 통해서 어떤 진리에 도달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괴카소뿐만 아니라 현대의 작가가 그림을 그릴경우 회화를 통해서 하나의 세계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을 바꾼 수 있다.

장 문 호
〈산업대교수·도예〉

'예술이 美를 이념으로 하고 있는가'

현대의 예술, 사상의 표명이 우세

어느 곳으로 이끌어 갈것인가? 에 집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항상도 말도 없는 심오한 내면적인 나라, 즉 영혼이며, 예술품은 창조자의 영혼을 감상자의 영혼에게 전달한다는 것 바꾸어 말해서 들라크르와의 "영혼의 사이에 가설된 다리"였다. 이때 비로서 보들레에르(Baudelaire)가 "이 이상 아름답고 이 이상 강력한 색채가 눈의 운하(運河)를 통해서 영혼에까지 침투한 적은 없었다"고 했듯이 눈의 운하를 통해서 영혼에서 영혼으로 라는 하나의 미학의 기본선이 설정되고 있다는 것을 각성하고 화가의 길 보다는 미학을 업으로 삼기위해 '미학과'로 진학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고전적인 예술은 아름다움을 중요한 관념으로 삼아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던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른바 세기말의 예술과 현대예술에 이르기 까지 예술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 따라서 미학이 아름다움과 예술의 학이라는 점은 저항없이 우리에게 받아 들여지고 있다.

그런데도 예술이 진정하게 아름다움을 이념으로 하고 있을까? 라는 물음을 제시하고 해답을 얻는데 나의 연구과제를 집중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대회화를 대변하는 괴카소(Picasso)가 그 독자적인 조형운동을 통해서 작품에 표현했던 것은 이른바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의 사상이었다는 점은 그 하나의 예이다. 이를테면 그의 대표작 '게르니카'는 거의 회혹색이라 할 수 이쁜 무채단색에 가까운 그림이며 주지된 바와같이 지배권력자가 불러 일으킨 전쟁에 의해 갈갈이 찢어진 육체와 죽어가는 자의 고뇌들이 그려져 있고, 권력을 지닌자의 앙칼진 추악한 얼굴능이 그려졌을 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림앞에 설 때 우리는 게르니카라는 도시를 아망때문에 파괴하는 전쟁의 참화와 그것을 추켜세우는 자에 대한 민중의 분노, 그리고 한가닥의 평화에 대한 희망을 생각케 한다. 즉 정서를 통해서 어떤 진리에 도달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괴카소뿐만 아니라 현대의 작가가 그림을 그릴경우 회화를 통해서 하나의 세계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을 바꾼 수 있다.

그처럼 예술은 현대에 있어서 하나의 사상의 표명이며, 사상인 이상 거기에는 진리·선·정의·유망·논리등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반면 아름다움은 사라져 가는 추세에 있다. 랩뮤직, 괴기한 '팝보'시리즈 영화, 육체의 악동을 과시하는 춤등, 생명의 에너지를 격동적으로 발산하는 현대인이 야성적인 절규의 배경, 그리고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을까를 조명하는 것도, 미학의 한 연구과제로 삼는것도 좋으리라고 본다.

비판과 칭찬 책임있고 올바라야

'퇴폐'매도 유감, 통합예술제 더욱 발전되길

93대동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려 하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여러 학우들도 알다시피 대학주보사와 체육대학간의 불미한 문제가 발생되어 이를 계기로 서로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같은 경희 학우로서 좀 더 아껴주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쓰고자 한다.

이번 일이 일어나면서 음대와 체대의 통합예술제를 관심있게 지켜본 학우들이 생각외로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대학주보를 읽는 독자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그리고 그 주보에 실린 글이 얼마나 학우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주보사 측에서는 통합예술제 사진과 그에 대한 문구를 재미있게 쓰려고 하다보니 좀 지나쳤다는 입장에서 공식사과를 해왔고 우리측에서는 무엇보다 그 사진만에 실린 말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여러가지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문용 사진을 놓고 퇴폐를 조장하는 사람들이란 말이 과연 주보사가 제보게 꾸밀 수는 있는 최대의 유머였는가, 그리고 과연 그 말이 여러 독자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그냥 웃을 수 있는 그런 문구였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여러 독자들이 생각을 진하고 경희의 모든 언론을 대표하고 있는 대학주보사에서는 이런 사소한 문구 하나라 할지라도 세심하게 검토하고 이것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이 없는지를 꼭 다시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은 비단 체대만의 일이 아니라 경희 전체의 일일 수도 있을 것이다. 비판은 올바른 비판으로, 칭찬은 올바른 칭찬으로 그리고 유머러스한 말은 정도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대학주보사 전체가 올바른 비판과 칭찬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밤을 새워가면 매주마다 주보를 내느라 힘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이번 일을 통해 협상에 임하면서 느끼게 된 것들이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학우들이 대학인들이 쓰는 단어의 선택에 너무나 유치하고 미흡한 말 그리고 빈감이 가는 말을 사용 하게 된다면 대학주보사의 위신이 문제가 되는 일이며 더 나아가 경희 대학의 위신을 깎아놓는 일이 될 것이다.

앞으로 경희 학우들의 일에 좀 더 세심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경희대학의 자랑스런 눈과 귀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이 지면을 통해 한 달 여간 땀을 흘리며 작품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음대와 무용과 학우들 그리고 행사 준비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닌 학회 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일로 무용학우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어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느낀다.

끝으로 통합예술제가 더더욱 경희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이 되어 학우들에게 많은 예술을 보여주고 예술과 가까워 지도록 하는데 한 몫을 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해 가기를 바란다.

최 현 주
〈무용·3, 무용과 학회장〉

독자초대석

이병하〈미교·3〉

한총련, 굳건하고 친근한 우리의 조직

— 한총련 출범식에 참가하며

조금은 가슴 떨리는 말이다.

백만 청년의 조직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출범을 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신화를 창조하며 진군해왔던 '전대협'이 보다 더 강화된 모습으로 백만 청년들에게 보다 더 친근한 벗으로 다가서기 위해 '한총련'이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섰다.

'한총련은 나의 조직이 아닌 우리의 조직으로서야 한다.'

모두가 한총련의 한 일원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한총련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활하며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제의 식민지하에 놓여있는 한반도 남단의 청년들이라면,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과감히 반미를 외칠 수 있어야 하고 분단 조국의 현실을 인식하고 그 아픔을 느끼는 청년이라면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함께 민주화의 대열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 어느 조직보다 힘이 있고, 그 어느 조직보다 튼튼한 조직, 한총련은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조직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총련을 믿기에 한총련에서 제기하는 투쟁에 참여하고 나의 의견도 제시한다.

모든 학우들이 한총련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다면 더욱더 발전된 힘있는 조직으로 커갈 것이다.

분명 한총련 출범식은 나에게 더 큰 믿음과 신뢰를 줄 것이라 믿는다.

항상 청년 학도들 앞에 비굴했던 정권, 청년 학도들 앞에 벌벌 떨었던 정권, 불의에 민감한,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없는 폭발시키는 힘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사라지는 전대협을 계승 발전시킨 한총련의 깃발아래 함께 동참 새날을 열어가는 투쟁을 전개해 나아가자.

출범식에 직접 참여하여 한총련이 하는 사업과 자신이 느끼는 한총련을 비교하며 우리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힘찬 진군을 했으면 한다.

박 대 식
〈산업공·3〉

알아봅시다

알해봅시다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한 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200자 원고지 4~6매 하이텔(ID);jang 3
◇보낼곳:서울·수원(본사편집실) 천리안(ID);choarha

의료원 PC 의료상담

본교 의료원은 공중통신망이 하이텔(HiTEL)을 통해 양, 한방 의료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원은 지난 2월부터 하이텔내 '원로방'에 진료상담을 제공한 이래 지난 5월 18일부터 '의약/건강'에 까시 제공폭을 넓혔다.

이 진료상담서비스는 이용자가 보내온 질문에 대해 해당 진료과장이 직접 검토소견을 작성 2, 3일 내 회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 '전할 예약'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관재과 도서관 의자교체

관재과는 도서관 의자를 일부 교체할 방침이다. 도서관 의자교체는 등투 기간때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요구 사항을 받아들인 것으로 교체폭은 대형열람실을 우선 순위로 하여 50%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의자는 관재과에서 4개의 모델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하나를 낙점하여 선정되었다.

朔風

아직도 건재한 오적(五賊), 그리고

세정부가 들어서면서 곧바로 시작된 '사정바람'은 그칠 줄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메스를 댄 때마다 곪았던 고름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개혁당사자는 조차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어 예상한 것 보다는 훨씬 심하게 부패했음을 보여준다. 공통점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직위를 악용하여 검은돈이 마약인 줄 모르고 받아 먹었다가 평생을 마쳐 일했던 공직과 명예가 물거품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폐인이 될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70년 5월 잠시 "사상계"에 군사독재에 항거하여 당시 사회 상층부의 부패상을 통열하고 시원스럽게 고발했던 저항시인 김지하씨의 '오적'이 발표되었다. 륙권층이라 할 수 있는 '재벌', '국회의원', '장성', '장차관', '고급공무원' 등을 다싯 도둑이라고 명명한 시이다. 20여년이 지나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 이 시가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자아내나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닌 수 없으며 후편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될 정도이다.

재벌 〈재벌놈 재조봐라.

장관은 노랗게 끓고 차관은 벌겋게 삶아…〉

국회의원 〈조조같이 가는 실눈, 가래끓는 목소리로 혁명공약 모자쓰고, 혁명공약 메지차고…〉

장성 〈엄동설한 박사없이 얼어죽는 졸병들을 일만하면 땀이 난다 온종일 사역시켜…〉

장차관 〈굶다라도 수출, 안팔려도 증산

아사한놈 뼈다귀로 현해탄 다리 놓아…〉

고급공무원 〈어허 저놈봐라 낯짝하나 더 붙었다. 유들유들 숫기도 좋거니와…〉

그 당시만 해도 교육계의 부조리는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니 심각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돈주고 대학에 부정입학하려는 엄두조차 내지 못한 것은 아마도 사회 구석구석이 부패해도 상아탑 만큼은 양심의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군사부일체'라 하여 스승에 대한 존경심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요즈음은 어떠한가. 사학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 부정입학시키고 입학정원을 늘리는 특혜를 받기위해 고위층의 자제들을 온갖 편법을 동원해 입학시켰다는 것은 그 숫자만큼 선량한 학생들의 앞날을 망쳐놓은 것이므로 크나큰 죄악을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또한 기부금을 바쳐야 교수로 채용된다는 소문이 더이상 공공연한 비밀로 넓어져서도 안 될 것이다.

공부를 잘해도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또는 뒤가 든든(?)한 배경이 없어서 입학기회와 채용의 기회를 놓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결코 밝다고 만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연일 계속해서 신문마다 부정입학시킨 대학의 이름이 대서특필되는 것을 보고서 졸업생의 한사람으로 혹시하는 불길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신화를 못해서가 아니라 거의 대다수의 대학이 관계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모교에서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었던 것 같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학교 당국자와 교수님, 후배, 학형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양심에서 빗어나는 행동을 하지말고 '세계로 웅비하는 경희', '자랑스러운 경희'가 되기 위해 졸업생을 비롯해 모든 경희인은 노력하길 바란다. (勳)

알림터

교수동정

김정주교수 방미

【서울캠퍼스】▲유동목(치대·치의학)교수=오는 8월25일부터 내년 8월24일까지 초청교수로 독일 방문 ▲김정주(체대·체육학)교수=오는 9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미국방문

【수원캠퍼스】▲박칠암(명예)교수=오는 6월20일부터 7월20일까지 Tbat지역 고산식물 고찰 및 고빈촉 문물전람을 위한 학술교류회 참석차 중국방문

등 기

학생증·도장 지참

【서울캠퍼스】▲김소정(국문·3) ▲박수열(생물·4) ▲김기영(법학) ▲김명재(회계·4) ▲최정명(경영) ▲고민정(식영·1) ▲신승훈(의대·3) ▲이경숙(한의본·2) ▲졸준위(한의대) ▲박연수(한의예·2) ▲장성원(한의예·1) ▲이상헌(한의본·3) ▲박준혁(한의예·2) ▲서정순(약·4) ▲노은희(성악·2) ▲이해선(무용·1) ▲김정재(국선관·317) ▲장성진(삼의원·312) ▲이성원(삼의원·419)

【수원캠퍼스】▲김해숙(영문·4) ▲김우정(물문·2) ▲윤정주(행정·2) ▲이승준(환경) ▲민동현(환경·4) ▲이승재(유전·4) ▲임영국(기계·3) ▲박준희(섬유) ▲한백겸(전자·3) ▲윤서현(전자·2) ▲김선안(전자·1) ▲최호진(전자·2) ▲구인환(건축·2) ▲박경삼(토목·3) ▲차승준(산공·3) ▲김삼우(원자·3) ▲진영미(식공·3) ▲주성숙(식공·3) ▲황수영(조경·4) ▲김호근(애지원·204) ▲황기룡(애지원·217)

(주)SKM
■소비자상담실 : 275-3531

12억 2천만의
소리공감대, 스매트

오디오 테이프의 선두주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스매트—
스매트는 연간 테이프 판매량 12억 2천만개를
기록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No.1 브랜드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유럽은 물론 중국, 동구권까지—
전 세계 90여개국에 수출되어
많은 음악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늘 원음을 재생한다는 신념으로 첨단설비와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서만 생산되는 스매트—
세계 12억 2천만 한분 한분께 맑고 깨끗한 원음을
전함으로써 하나의 소리공감대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SMAT®